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0호 [무계 제26134호] 주제 107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배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존경하는 습근평동지

나는 습근평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진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습근평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등로서 자신의 특별한 노력과 공헌을 보여주시고, 중국당 및 정부대표단을 보내주신 것은 나 자신과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습근평동지의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각별한 친선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나라 로세대명동지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펼쳐주신 조종선전은 오늘 세사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발전되고 있습니다.

나는 습근평동지와 함께 조종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긴밀한 친선과 단결, 협조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인민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세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제 107(2018)년 9월 15일

평양

불멸의 업적,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 절세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 통신이 보도, 단행본으로 출판,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주성을 견지하자》의 전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8월 26일 인터넷의 인터넷통신 보이스 오브 디피 언저가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멸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만나 밍글라 드레곤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6일에 진행되었다.

출판사 총서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작을 출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세계경제발전

전을 주도해나가는 강국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의 업적과 조선의 현실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멸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의 전문을 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도이쉴란드국제언단이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경제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의 전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지아신문 《크라스노아르스크 라보치》 5일부가 게재하였다.

신문은 경제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사사진편을 모시었다.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지아, 벨라리아, 인디아, 타이, 쿠웨이트, 에티오피아에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들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나라와 지역기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전로씨에넬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서기는 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인위권을 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시었다.

그분들의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한편 정력적인 데의 활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강국으로 발전시켜주시었다.

그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어 나갔다.

벨라리아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여러 인사들은 과거 열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식민지약속으로 되었던 조선이 오늘날 세계에 빛을 뿌리는 나라로 되었다. 지난 70년간 조선이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성과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고 위대한 실천가

이시며 인민의 길잡이인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 사회주의보루로 건립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높이 오르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련된 장군들의 기적들을 편입 창조하고있다. 전보적 인류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쿠웨이트 아시아지역사회위원장인 이영택은 이렇게 찬양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명도가 있어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제국에서도 승리만을 안아올 수 있었다.

정의와 정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대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셔 우리 공화국이 오로지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 새겨올 수 있는데 대해 상세히 언급하였다.

로지아, 벨라리아, 인디아에서 진행된 토론회들에서는 경제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축원이 제피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불타는 애국열의를 안고 전인민적인 총진군에 더욱 과감히 펼쳐나서자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계속혁신, 계속전진

강원도에

경제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사생생단의 각오와 열혈투쟁의 의지로 당적 임무나 수령의 유령과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정신이 바로 강원도정신입니다.》

강원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 창건 일흔일을 성대히 경축한 자방안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물적운동의 앞장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힘차게 벌리고있다.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자력갱생기지가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이천군민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여러 군민발전소건설장들이 완공되어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고있다.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자력갱생기지가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이천군민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여러 군민발전소건설장들이 완공되어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고있다.

송성로프타드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당앞에 결의

한 프타드프생산목표를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의 불길에 새차게 라오르고있다. 원산시 강변이 가공공장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이 완공되어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고있다.

도당 위원회에서는 배두산발전소건설의 령도업적에 있을수있는 공장, 기업소들과 혁명적분자들은 물론 여러 군민발전소건설장들과 자력갱생기지를 비롯한 도안의 주요건설장소에서 강원도정신의 불길이 더 세차게 라오르도록 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선진노동부에서는 올해전투목표를 기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형식의 선진노동시위를 벌려 일리마다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있다.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에서도 새로운 위훈창조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신정치사업을 완성하게 벌

리고있다.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힘입어 정치사업은 그대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에 새차게 라오르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삼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천내리세멘트공장과 문천 말뚝공장, 원산 화학공장과 원산수두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병도업적단위들이 생산적열정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병도업적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높이 취급하고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천내리세멘트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삼지연군민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고조전주공장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매달 말려진 파제를 앞당겨 수행하고있다.

원산수두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높은 수준

에서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원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다.

도안의 여러 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도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이천군민발전소건설을 맡은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중산물적운동의 불길에 새차게 일어섰고있다.

고성, 세로, 회양, 평강군민발전소건설장들에서 불타는 조진에서도 인제개배수원형용 크리치기와 물길공사에서 정제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원산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수력발전소들에서도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력생산을 높이고 있다.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도 혁신의 새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있다.

도당보장이 전국의 본보기로 훌륭히 꾸려지고 강녕이와 강자들 가광할 수 있는 원산시강변이

가공공장이 새로 일터세네 이어 배봉산생물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벌어져 원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다.

이천군민발전소건설을 맡은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중산물적운동의 불길에 새차게 일어섰고있다.

고성, 세로, 회양, 평강군민발전소건설장들에서 불타는 조진에서도 인제개배수원형용 크리치기와 물길공사에서 정제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원산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수력발전소들에서도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력생산을 높이고 있다.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도 혁신의 새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있다.

도당보장이 전국의 본보기로 훌륭히 꾸려지고 강녕이와 강자들 가광할 수 있는 원산시강변이

축산물생산성과 확대

자강도의 축산기지들에서

자강도의 축산기지들에서 고기와 알생산성과가 확대되고있다.

총합된 자포에 의하면 홍주담공장, 강계대지공장, 강계오리공장, 만포담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단위들에서도 중산물적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일꾼들과 로동자들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도에서 생산한 소금으로 만산소다와 가성소다, 염산을 만들어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이와 함께 한천철생산공장, 마감건설생산지지를 비롯한 자력갱생기지가 일터세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고있다.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안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은총속에 일터세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축산물생산은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지하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이어지는 홍주담공장과 강계대지공장, 강계오리공장에서 나온 일꾼들은 고기와 알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나가고있다.

관리국에서 닭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 등에서 더 많은 고기와 알생산과로 뜻깊은 올해를 빛내기 위한 투쟁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홍주담공장에서 고기와 알생산성이 계속 뛰어오르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넣어 폐사율을 극력 줄이고있다.

사양공들은 먹이와 물주기, 온습도보장을 비롯한 사양관리법의 생리특성에 맞게 기술요구대로 하고있다.

강계대지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은 과학적인 통제체계가 세워질때까지 새끼마리수를 늘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

다. 또한 새끼번 돼지들에 대한 관리와 갓난 새끼돼지들의 증체율을 높이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치고있다. 육식적업만의 사양공들은 쫓겨 새끼돼지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무리수성과 온습도보장, 가스배출을 기술요구대로 하고있다.

비육적업만의 사양공들도 돼지들의 증체율이 높아지는데 맞게 배합이 주구, 푸릿기기를 잘하고있다.

강계오리공장은 어리 호종들에 대한 개건공사를 다그치면서 새끼오리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또한 수의방역사업과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고기생산성을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동물성단백질, 도라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를 적극 이용하여 생산을 확대해나가고있다.

만포, 평천, 전천, 선강담공장과 회천, 전천오리공장에서 도 고기와 알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자강도 각 축산공장에서는 자체의 원리를 의거한 먹이원자재 생산을 높여 고기와 알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김 순 흥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에 더 많은 통나무를

유 평 립 산 사 업 소 에 서

공화국 창건 일흔일을 성대히 경축한 공지를 안고 유평림사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산란마다에서 통나무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제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8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었다는 간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더욱 감동하여 수백명의 통나무를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에 보내준 이들은 이날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기상을 띠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제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 부름이려면 한마음한 뜻으로 뿔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봉이며 기쁨입니다.》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최

한 산간문화도시로 훌륭히 꾸린 데 필요한 통나무보장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부단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며 과감한 돌파를 벌리고있다.

당의 전무적소통을 높이 받들고 립산사업소의 당, 행정일꾼들은 제일장소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새차게 휘몰아치도록 화신정치사업과 생산지휘를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이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일꾼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짜고들면서 이신작적의 일보세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에 원 산지 통나무를 원만한 생산보장할 불타는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사업소내에 작업소들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에비

를 최대한 탐구하면서 줄기 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초계수림산작업소와 왕도림산작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키며 통나무생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기계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사이나르기에 부합하도록 적극 이용하여 삼지연군안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이계수림산작업소, 하경평림산작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데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삼지연군안에서 통나무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지난 8월 통나무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이계수림산작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이달에도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를

비롯한 여러 공정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혜로 풀어나가면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운수와 공무부문의 로동자들은 문지기들에게 대한 점검을 간사하게 하고 실정률을 높이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주를 벌려 제기되는 부족물가공과 삼비수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사업소종업원들의 안해들도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볼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건설시키는데 자신들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불심방면의 지원으로 남편들의 통나무생산투쟁을 적극 떠맡아주고있다.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에 필요한 통나무를 원만한 생산하여 보내주려는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적 인 투쟁으로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 경 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물적운동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김 광 립 직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나는 민족적기원 친선적인 귀국장정일을 경축하는 각하에 나 자신과 그리고 바에인왕국 인민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복과 함께 훌륭한 경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각하의 천명한 병도민에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바레인 왕국 국왕
하마드 빈 이싸 알 할리파
2018년 8월 29일 마나 마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모잠비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역사적인 이날을 맞아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부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견고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랜 기간 우리 두 나라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여오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모잠비크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관계가 친선의 력사와 오상리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시길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진보와 번영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모잠비크공화국 대통령
필리페 자신투 뉴씨
2018년 9월 4일 마푸토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각하께와 각하를 통하여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대지도자들께서 기초를 마련하고 이끌어오신 역사적인 공화국 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70돐을 맞이하는 문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의 진보적인 친선관계가 확대강화되고 두 나라가 지역에서의 협조를 발전시키며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위업에 자기의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통성발원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할트마긴 바프톨가
2018년 9월 5일 울란바타르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나 자신과 그리고 짐바브웨공화국 인민을 대표하여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이날을 경축하는 이 시각 나는 독립을 위한 짐바브웨의 투쟁에서의 귀국의 중대한 역할과 공헌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 나라 인민들의 더 좋은 복지를 위해 우리 두 나라사이의 협조가 더욱 발전하기를 열렬히 희망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시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
에머슨 담부조 음난가그와
2018년 9월 5일 하라웨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인 9월 9일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부디의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경축행사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마음속에서 더 큰 행복과 애국심을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멋으로서 평화적환경에서 공동의 리익에 맞게 쌍무관계와 초지역적 협조를 강화할것을 희망합니다. 최근 북조선의 지도자들사이에서 역사적인 상봉들이 진행되고 2018년 제18차 아시아경제대회에서 조선의 단일일이 입장한것으로 하여 나는 평화가 이룩되어 북조선사이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국제적수준에서 확대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하께 나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2018년 9월 7일 자카르타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벨라루시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세계공동체는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있는 사면들을 관심속에 주시하고있습니다. 긴장완화와 대화에로의 이행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것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과 공화국인민들의 복지를 위한 계획들이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한번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벨라루시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2018년 9월 9일 민스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베네수엘라볼리바르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영웅적이며 존엄높은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귀 공화국의 장군은 인민정권형태의 자주적인 독립국가건설, 사회주의건설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면입니다. 나는 인민에게 복무하고 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경제적기초를 건설하는것을 목표로 하는 자주적인 국가를 창건하시므로써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그리고 조국의 력사들에게 귀국인민이 때마다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있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호파적인 협조를 추동하면서 발전하고있는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훌륭한 정치적관계에 대하여 강조하게 됩니다.

우려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국제법과 자주권, 인민들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화목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주의로부터 해방된 다국화된 세계의 공고화를 위하여 계속 함께 일해나갈것입니다.

바로 이 투쟁을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는 《세계의 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우리의 영원한 사명관 우고 차베스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제국주의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백사산의 모든 행정은 인구가 평화와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의 길로 믿음직하게 전진하고있으며 제국주의는 풀이킬수 없는 불타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어주셨습니다.》라고 하신 보고내용을 력력히 되새기게 됩니다.

승리와 존엄의 상징인 영랑스머를 이날에 나는 당신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2018년 9월 9일 카라카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길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을 가슴깊이 새겨준다. -안악군 대추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적인 신념정신임을 잘하는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지니고있는 신성한 의무이다.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조국산천을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꾸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하시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산맥이 줄어드는것이 가슴아프시어 내 나라를 수령화, 원림화할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까지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습니다.》 주체97(2008)년 8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를부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서 어느 한 군의 신령명 영소를 찾아주시었다. 먼저 지관도 앞으로 가진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의 신념과 나무모양생장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었다. 한 일군으로부터 그해에 군에서 잣나무를 30정도 심었다는 데 대해서도 그중 50%가 잘 자란 면적이야는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주 잘했다고 하시면서 못내 탄복하시었다. 과학기술혁신전선(당시)과 양보장을 돌아보시면서도 이곳 일군들의 일보에 대해 높이 평가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의 파란한 정가를 받으신 으며 일군들은 양보장을 꾸리고 나무모를 가꾸어온 나무들이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모든것이 부끄럽고 어려운 속에서 양보장을 꾸밀것을 믿고있고 실현해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곡식을 심을 땅도 부족하니 나무모를 심는다고 하였고 힘들게 나무모나 키워서야 무를 얻을 보겠는가 하고 하면서 신통 나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때 일군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것은 오늘날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삼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적이였다. 그의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부딪히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신념정신을 위한 사업을 즐기게 해내신 그 나무를 거듭들수 록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원민의 가슴마다에 필승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현대화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입니다.》 주체96(2007)년 3월 어느날이었다. 이른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박진적공정을 찾으시었다. 그이를 맞이한 공장의 일군들은 어느때였는지 크나큰 감격과 함께 은근한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담요직장을 밟을지라도 개진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들여다 질풍은 담요를 팽팡 생각하고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이장군님을 모시고 현대화된 담요직장에 들어선 수령일군들도 경탄하였다. 어느 공정을 돌아보아도 자동화, 컴퓨터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 제품들의 질도 좋은 것으로 하여 여기가 정말 멀쩡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돌아온 그 진지공장이 출진 출근가 하는 의심까지 가질 정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랜 시간 1층의 생산공장에 이어 2층의 가공, 완성공정까지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다. 그리고는 박진적공장에서 생산하는 담요의 질이 높아지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이 공장에서 담요생산에 참가한 일군들을 다루는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 중요하

다고 가르치시었다. 이윽하여 밖으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도의 책인인민군에다우현시지도일군으로 예견된 공장의 설비상태에 대하여 물으시는것이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더니 다른 나라에서 볼여오는 설비들은 우리 로동계급의 창조적지혜가 깃들여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런 설비를 들여다놓고 주위 환경이나 깨끗하게 꾸러놓을것이 아니라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이미 있는 설비들을 개선하거나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을 혁신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공장일군들은 자책감을 금치 못하였다. 다른 나라 기계 설비들을 들여다 설치해놓고 현대화에 대하여 자부하고있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큰 실리를 얻는 현대화, 그것이 바로 당이 바라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현대화라는것을 절감하였다. 그렇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 여기에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현대화사업을 우리 식으로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오늘날의 생산물질을 다루는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 중요하

나라의 전반적리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기풍

지금 온 나라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물적중심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당의 웅대한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든 문제를 당적, 국가적립장에서 보고 대하여 나라의 전반적리익을 우선시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제기되는 모든 문제물과 당적 리익의 견지에서 대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천만번 재검토하고 정확히 결심을 내리는것을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전반적리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다. 해방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명토에서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리익에는 국가적리익과 함께 개인적리익이 있다. 국가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내세우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투영시키려는 편견이나 태도이다.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리익은 어떻게 되는 자기 지방, 자기 기관, 자기 부서의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공명주의, 리기주의이며 자본주의사상관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만 들이 나라사정에서 어떻게 조장되든 리기주의적관행이 커다란 재앙을 자국에 내줄것은 틀림없을것이다. 한편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별적리익의 리익은 철저히 해당 부서의 리익과 통일되어야 하며 부서의 리익은 국가의 리익에 투영되어야 한다. 나라의 전반적리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다음으로 경제건설대진이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이 땅에서는 자력경제의 기치높이 나라의 경제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인민경제전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현실이 때 부분, 때 단원들에게 나선 투쟁목표는 방대하여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다. 강도적인 경제분배로 우리 인민을 적시게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나라의 모든 인적, 물질적자원을 국가의 총일적리익에 경제발전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원들은 임철히 면담되어있고 모든 경제활동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밀물려 진행되고있다. 만일 개별적리익이 나라사정에서 어떻게 조장되고 자기 전진적리익을 앞세우고 자기의 전진적리익을 희생시키려는 편견이 커다란 재앙을 자국에 내줄것은 틀림없을것이다. 한편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별적리익의 리익은 철저히 해당 부서의 리익과 통일되어야 하며 부서의 리익은 국가의 리익에 투영되어야 한다. 나라의 전반적리익을 우선시하는

영원한 삶의 품, 귀중한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천리마의 고향에 꽃피는 아름다운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적 핵심부대, 나라의 앞마당에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발붙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1호초고전력기기로

강선의 1호초고전력기기로 앞에서

장사무실에 들었던 박성재작업반장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였다. 하루일을 끝마친 작업반원들이 그때까지도 전구교제와 슬라그남비교제작업을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피곤도 미문제 다음교제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작업반장은 저도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서 들어올까라는 그의 권고에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의 증산복합공장에서 우리만 앞시각잡아 있지 않습니까.》

1호초고전력기기로를 지켜선 로동계급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있다. 동지를 위하여 집단을 위하여 아름다운 마음과 고상한 품격이여 떠날때.

기로 앞에서

원도 아닌데 하루를 지냈을 만하다고 누가 탓하겠소. 여기 정은 맑고 어서 들어가오.》

작업반장의 말에 김태동동무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전기기로와 용해공들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리 침상에 누워있을수 없었다고.

마음의 슬금부레 스스로 자기 이름을 새겨넣으며 강선의 용해공들과 뜻도 슬금도 같이하는 사람이 어찌 김태동동무뿐이라. 매일 같이 1호초고전력기기로현장을 찾는 수많은 지원자들과 함께 우리는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여기 강선으로 달려오고있다.

작업반장의 일목십

직장사무실문을 나서면 1호초고전력기기로 3작업반장 리복철작업반장을 놓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는 3작업반도 당계를 늦추어서 안되겠소.》

리복철작업반장은 속으로 마음다.

《이쪽 작업반에서는 세번째이지만 최후생산에서야 우리가 뒤질수 없지. 오늘부터 전투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당지시와 자부심이 차오르군 했습니까.》

그것이 이번엔 태극에 동고하기 전에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는가고 부모들이 꽃을 매어 가는데 현장을 보니는 김태동동무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강선에서 나서자

영광의 땅에서 만년 미더워 청년들

온천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철관개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은 나바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온천군 금당리, 이 땅의 땅을 밟는 우리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걸으신 포전길은 어디인가, 불현한 몸이 만 인민들이 가슴아파할 것을 넘어하시어 지평을 송송차고 두고 내리신 그 눈물겨운 사연이 새겨진 곳은 과연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눈앞에 강령이들이 키높이 자란 포전에서 땀을 흘려만는 청년들의 모습이 어려웠다.

그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의 깃든 뜻있는 곳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정성을 쏟고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이 포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금당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

에 다녀가신 포전입니다.》

분조장 차원철동무의 이야기가 되었다.

은천군 금당협동농장에 청년분조가 태어난것은 20여년전이라고 한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 인민이 크나큰 슬픔에 몸부림치던 때에 각지의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철한 눈부림을 잃지 않으려 하려는 일념을 안고 이북 농장들로 향하여왔으며 청년분조를 꾸렸다.

청년분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에 빛나며 자기들을 인양 기쁨은 어머니조국에 청춘의 열정과 힘을 쏟고 리 바쳐갈 숭고한 지향을 안고 농장법에 후두두 땀을 쏟았다.

청년분조의 첫 분조장이었던 어제날의 평양지나가 20여년전 청년학생들의 야외 및 생활형이 진행될 때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혁명의 재물함을 넘겨받는 최상급의 영광을 지닌것으로 하여 온천군 금당협동농장 청년분조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청년분조로 되었다.

그런 청년분조에서 청춘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어온다. 공지와 자부심은 인민희생을 비롯한 모든 분조원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올해에도 청년분조원들은 년 초부터 질 좋은 기쁨을 많이 생산하여 포전마을에 뽐내었다. 모내기에매도 지원로복을 받지 않고도 모든 농사일을 쉼의 힘으로 앞설것을 하였으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포전들

청년분조원들

불발처럼 알뜰히 가꾸었다.

《이 강령이들은 밭보리거울을 하고 뒤그루로 심은것들입니다.》

분조원들이 강령이들이 실하게 자라는 포전을 가꾸어 자랑스럽게 하는 밭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키높이 자란 강령이들이 매년 없이 꽃피는 기운도 이겨내고 후를 일을 견디고 역력같이 서있는 모습은 청년분조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에 얼마나 뜨거우진진성과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지 생동한 화폭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국이 수놓아진 영광의 땅에서 청춘을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여러 청년분조원들이 조선로동당원의 값있는 열매를 지니었으며 여러 농장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로 성장하였다.

지난 4월 이곳 청년분조에서는 또 한명의 청년분조원을 대향으로 떠나보냈다.

청년분조에 참여한이 공지와 보람, 희열과 방만의 이야기들은 애국충정의 한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땅을 갈라 끝마르, 한창제 나아가는 길에 우리 청년들의 값있는 열매, 참다운 삶이라는 진리를 밝혀주고 있었다.

어머니조국은 그런 청년들에게 인생의 값있는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본사기자 허 명 숙

《 함께 갑시다 》

올해공들의 눈길은 초고전력 전기기로의 출구쪽을 주시하고있었다. 잠시후 온 용해현장을 훑어 볼일이 시멘트 최봉이 새겨져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1호초고전력기기로 박성재작업반원들이 또 한차례의 출장을 보강하러간다.

《잘 익었군. 이번 출장이야말로 만만치않아!》

꽃향기 미소를 지은채 장철로장이 하는 말이다. 작업반원들 모두가 지수가 나서 일손을 더디는 속에 미소꽃을 흔들리는 가슴을 웃으며 한 젊은 용해공이 누구에게가라고 말했다.

《쇠를 벗고 벗어난 날은 왜 서신지 속이 더 풀릴까네...》

이때였다. 《동무들-》 하는 성내는 목소리와 함께 방안에 걸린 두께를 두 작업반원들 공 리수향동무가 용해현장으로 들어왔다. 맑은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속에서도 작업반원들을 위해 늘 마음을 쓰는 그것

다. 시련한 사이를 돌며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용해공들을 호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박성재동무에게 인연의 리수향동무가 귀속할지 물었다.

《우리 작업반의 오늘같은 문제없었지요?》

얼마후 포전시간도 다되어 직

마음의 출근부

공회국장직업일을 가까이 한 지날 8월 하순 어느날 로장이 현 날모를 청년과 함께 흥얼흥얼작업반장을 찾았다.

《반장동무, 오늘부터 이 청년이 봉무내 작업반에서 일하게 되는데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 제대인이며 김태동동무에게 입회한 김태동동무는 천리마강원합업소장직장 1호초고전력기기로에서 자신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날 시련을 묻는 작업반장에 김태동동무는 말했다.

《저는 강선에서 나서자

작업반장의 일목십

직장사무실문을 나서면 1호초고전력기기로 3작업반장 리복철작업반장을 놓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는 3작업반도 당계를 늦추어서 안되겠소.》

리복철작업반장은 속으로 마음다.

《이쪽 작업반에서는 세번째이지만 최후생산에서야 우리가 뒤질수 없지. 오늘부터 전투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당지시와 자부심이 차오르군 했습니까.》

그것이 이번엔 태극에 동고하기 전에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는가고 부모들이 꽃을 매어 가는데 현장을 보니는 김태동동무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강선에서 나서자

작업반장의 일목십

직장사무실문을 나서면 1호초고전력기기로 3작업반장 리복철작업반장을 놓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는 3작업반도 당계를 늦추어서 안되겠소.》

리복철작업반장은 속으로 마음다.

《이쪽 작업반에서는 세번째이지만 최후생산에서야 우리가 뒤질수 없지. 오늘부터 전투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당지시와 자부심이 차오르군 했습니까.》

그것이 이번엔 태극에 동고하기 전에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는가고 부모들이 꽃을 매어 가는데 현장을 보니는 김태동동무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강선에서 나서자

영광의 땅에서 만년 미더워 청년들

온천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철관개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은 나바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온천군 금당리, 이 땅의 땅을 밟는 우리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걸으신 포전길은 어디인가, 불현한 몸이 만 인민들이 가슴아파할 것을 넘어하시어 지평을 송송차고 두고 내리신 그 눈물겨운 사연이 새겨진 곳은 과연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눈앞에 강령이들이 키높이 자란 포전에서 땀을 흘려만는 청년들의 모습이 어려웠다.

그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의 깃든 뜻있는 곳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정성을 쏟고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이 포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금당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

에 다녀가신 포전입니다.》

분조장 차원철동무의 이야기가 되었다.

은천군 금당협동농장에 청년분조가 태어난것은 20여년전이라고 한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 인민이 크나큰 슬픔에 몸부림치던 때에 각지의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철한 눈부림을 잃지 않으려 하려는 일념을 안고 이북 농장들로 향하여왔으며 청년분조를 꾸렸다.

청년분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에 빛나며 자기들을 인양 기쁨은 어머니조국에 청춘의 열정과 힘을 쏟고 리 바쳐갈 숭고한 지향을 안고 농장법에 후두두 땀을 쏟았다.

청년분조의 첫 분조장이었던 어제날의 평양지나가 20여년전 청년학생들의 야외 및 생활형이 진행될 때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혁명의 재물함을 넘겨받는 최상급의 영광을 지닌것으로 하여 온천군 금당협동농장 청년분조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청년분조로 되었다.

그런 청년분조에서 청춘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어온다. 공지와 자부심은 인민희생을 비롯한 모든 분조원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올해에도 청년분조원들은 년 초부터 질 좋은 기쁨을 많이 생산하여 포전마을에 뽐내었다. 모내기에매도 지원로복을 받지 않고도 모든 농사일을 쉼의 힘으로 앞설것을 하였으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포전들

청년분조원들

불발처럼 알뜰히 가꾸었다.

《이 강령이들은 밭보리거울을 하고 뒤그루로 심은것들입니다.》

분조원들이 강령이들이 실하게 자라는 포전을 가꾸어 자랑스럽게 하는 밭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키높이 자란 강령이들이 매년 없이 꽃피는 기운도 이겨내고 후를 일을 견디고 역력같이 서있는 모습은 청년분조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에 얼마나 뜨거우진진성과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지 생동한 화폭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국이 수놓아진 영광의 땅에서 청춘을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여러 청년분조원들이 조선로동당원의 값있는 열매를 지니었으며 여러 농장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로 성장하였다.

지난 4월 이곳 청년분조에서는 또 한명의 청년분조원을 대향으로 떠나보냈다.

청년분조에 참여한이 공지와 보람, 희열과 방만의 이야기들은 애국충정의 한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땅을 갈라 끝마르, 한창제 나아가는 길에 우리 청년들의 값있는 열매, 참다운 삶이라는 진리를 밝혀주고 있었다.

어머니조국은 그런 청년들에게 인생의 값있는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수기 인생의 행복

내 나이 어느덧 일흔다섯살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10대의 꽃나이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직업은 변하지 않았다.

위생 시설수리공, 나는 이 직업에 평생토록 사랑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장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피는 것이다.》

우리 가정은 도시정영부문의 한 직업에서 3대를 이어 일해오고있다. 태평양후 어버이수령님께서 도시들의 상하수도망을 형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들리신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스스로 신의주시에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나섰고 그 후에도 가족들을 세웠다.

위생 시설수리공일을 시작한 초기 나는 곳곳에 흩어진 작업부처들로 동생들과 마주칠 때마다 몹시 부끄러워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못하겠다고 하였을 때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일은 인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이 땅의 생활이 즐거우게 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것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초소이고 절필히 말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평이 나는데로 동사수도를 찾아다니며 동, 인민반별학도를 그리었고 매 살림집들의 관구조를 날이 밝도록 연구하였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얼마후부터는 어려운 수리도 척척 해낼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나를 우리 위생 시설수리

행복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위생 시설수리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평범한 위생 시설수리공이지만 당과 조국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날때 공지높고 보람찬 삶을 빛내어온 나는 후대들에게 당부하고싶다.

인생의 영광과 행복도, 높은 명에도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정교리 비치는 그 길에 있다고, 우리 공화국은 공민의 성실한 품과 순결한 정성을 제일 값있는 평가하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들이라고, 신의주중앙합업소 로동자 공훈도서관리공 최 정 순

행복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위생 시설수리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평범한 위생 시설수리공이지만 당과 조국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날때 공지높고 보람찬 삶을 빛내어온 나는 후대들에게 당부하고싶다.

인생의 영광과 행복도, 높은 명에도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정교리 비치는 그 길에 있다고, 우리 공화국은 공민의 성실한 품과 순결한 정성을 제일 값있는 평가하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들이라고, 신의주중앙합업소 로동자 공훈도서관리공 최 정 순

행복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위생 시설수리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평범한 위생 시설수리공이지만 당과 조국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날때 공지높고 보람찬 삶을 빛내어온 나는 후대들에게 당부하고싶다.

인생의 영광과 행복도, 높은 명에도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정교리 비치는 그 길에 있다고, 우리 공화국은 공민의 성실한 품과 순결한 정성을 제일 값있는 평가하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들이라고, 신의주중앙합업소 로동자 공훈도서관리공 최 정 순

행복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위생 시설수리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평범한 위생 시설수리공이지만 당과 조국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날때 공지높고 보람찬 삶을 빛내어온 나는 후대들에게 당부하고싶다.

인생의 영광과 행복도, 높은 명에도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정교리 비치는 그 길에 있다고, 우리 공화국은 공민의 성실한 품과 순결한 정성을 제일 값있는 평가하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들이라고, 신의주중앙합업소 로동자 공훈도서관리공 최 정 순

행복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위생 시설수리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평범한 위생 시설수리공이지만 당과 조국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날때 공지높고 보람찬 삶을 빛내어온 나는 후대들에게 당부하고싶다.

인생의 영광과 행복도, 높은 명에도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정교리 비치는 그 길에 있다고, 우리 공화국은 공민의 성실한 품과 순결한 정성을 제일 값있는 평가하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들이라고, 신의주중앙합업소 로동자 공훈도서관리공 최 정 순

행복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위생 시설수리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평범한 위생 시설수리공이지만 당과 조국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날때 공지높고 보람찬 삶을 빛내어온 나는 후대들에게 당부하고싶다.

인생의 영광과 행복도, 높은 명에도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정교리 비치는 그 길에 있다고, 우리 공화국은 공민의 성실한 품과 순결한 정성을 제일 값있는 평가하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들이라고, 신의주중앙합업소 로동자 공훈도서관리공 최 정 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선봉지구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열렬한 함포, 조국애를 안고 나무모생산을 위하여 애를 기울이고있다.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헌신기 산림조성사업이 각시킴에서 그 중요성 깊어 인식을 하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의거하여 나무모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펴고있어 진행되고있다. 모체양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선봉지구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열렬한 함포, 조국애를 안고 나무모생산을 위하여 애를 기울이고있다.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헌신기 산림조성사업이 각시킴에서 그 중요성 깊어 인식을 하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의거하여 나무모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펴고있어 진행되고있다. 모체양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선봉지구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열렬한 함포, 조국애를 안고 나무모생산을 위하여 애를 기울이고있다.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헌신기 산림조성사업이 각시킴에서 그 중요성 깊어 인식을 하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의거하여 나무모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펴고있어 진행되고있다. 모체양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선봉지구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열렬한 함포, 조국애를 안고 나무모생산을 위하여 애를 기울이고있다.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헌신기 산림조성사업이 각시킴에서 그 중요성 깊어 인식을 하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의거하여 나무모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펴고있어 진행되고있다. 모체양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선봉지구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열렬한 함포, 조국애를 안고 나무모생산을 위하여 애를 기울이고있다.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헌신기 산림조성사업이 각시킴에서 그 중요성 깊어 인식을 하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의거하여 나무모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펴고있어 진행되고있다. 모체양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선봉지구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열렬한 함포, 조국애를 안고 나무모생산을 위하여 애를 기울이고있다.

선봉산리경영소의 일꾼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헌신기 산림조성사업이 각시킴에서 그 중요성 깊어 인식을 하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의거하여 나무모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펴고있어 진행되고있다. 모체양

종업원들의 정든 보금자리

증산은 하피복공장 로동자합숙을 찾아서

차림치는 물놀이장은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호호하게 해주었다.

관리원은 올해에 특별이 지속되는 메년에 없는 무더위속에서 종업원들이 생산을 계속 내밀수 있는 물놀이장의 덕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이여 위해 쓰인 이야기며 종업원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들으며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제일먼저 눈에 띄는것은 탁구판이었다.

제대인은 명절날이나 휴식일을 비롯하여 제기마다 합숙생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볼

종업원들의 정든 보금자리

증산은 하피복공장 로동자합숙을 찾아서

차림치는 물놀이장은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호호하게 해주었다.

관리원은 올해에 특별이 지속되는 메년에 없는 무더위속에서 종업원들이 생산을 계속 내밀수 있는 물놀이장의 덕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이여 위해 쓰인 이야기며 종업원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들으며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제일먼저 눈에 띄는것은 탁구판이었다.

제대인은 명절날이나 휴식일을 비롯하여 제기마다 합숙생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볼

종업원들의 정든 보금자리

증산은 하피복공장 로동자합숙을 찾아서

차림치는 물놀이장은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호호하게 해주었다.

관리원은 올해에 특별이 지속되는 메년에 없는 무더위속에서 종업원들이 생산을 계속 내밀수 있는 물놀이장의 덕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이여 위해 쓰인 이야기며 종업원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들으며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제일먼저 눈에 띄는것은 탁구판이었다.

제대인은 명절날이나 휴식일을 비롯하여 제기마다 합숙생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볼

종업원들의 정든 보금자리

증산은 하피복공장 로동자합숙을 찾아서

차림치는 물놀이장은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호호하게 해주었다.

관리원은 올해에 특별이 지속되는 메년에 없는 무더위속에서 종업원들이 생산을 계속 내밀수 있는 물놀이장의 덕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이여 위해 쓰인 이야기며 종업원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들으며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제일먼저 눈에 띄는것은 탁구판이었다.

제대인은 명절날이나 휴식일을 비롯하여 제기마다 합숙생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볼

종업원들의 정든 보금자리

증산은 하피복공장 로동자합숙을 찾아서

차림치는 물놀이장은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호호하게 해주었다.

관리원은 올해에 특별이 지속되는 메년에 없는 무더위속에서 종업원들이 생산을 계속 내밀수 있는 물놀이장의 덕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이여 위해 쓰인 이야기며 종업원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들으며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제일먼저 눈에 띄는것은 탁구판이었다.

제대인은 명절날이나 휴식일을 비롯하여 제기마다 합숙생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볼

종업원들의 정든 보금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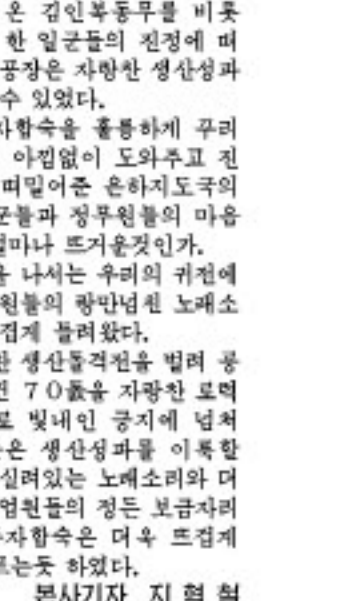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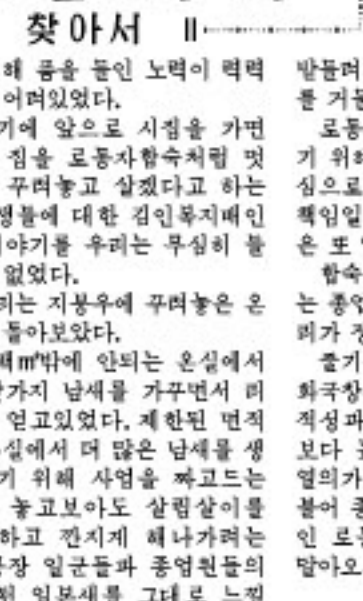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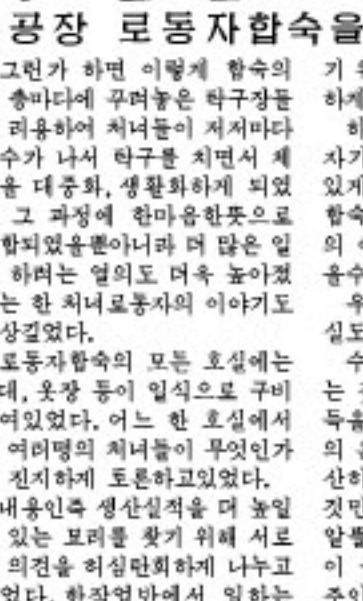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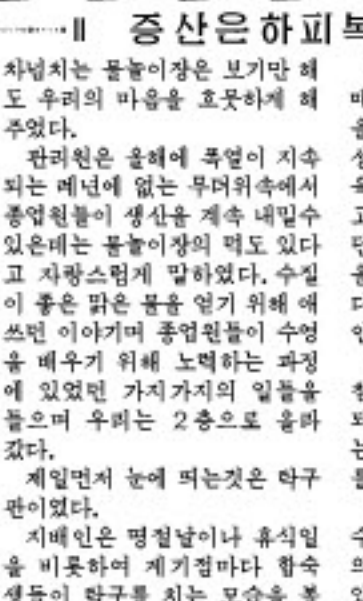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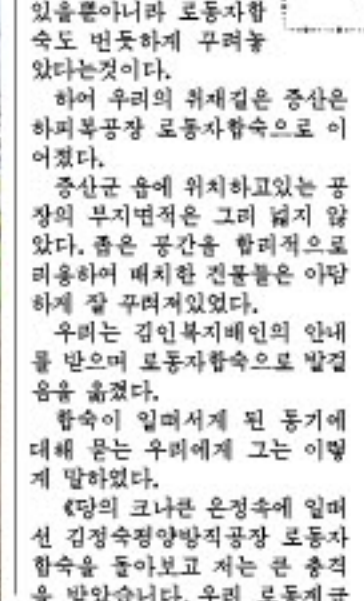
증산은 하피복공장 로동자합숙을 찾아서

차림치는 물놀이장은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호호하게 해주었다.

관리원은 올해에 특별이 지속되는 메년에 없는 무더위속에서 종업원들이 생산을 계속 내밀수 있는 물놀이장의 덕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이여 위해 쓰인 이야기며 종업원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들으며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제일먼저 눈에 띄는것은 탁구판이었다.

제대인은 명절날이나 휴식일을 비롯하여 제기마다 합숙생들이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볼



화해협력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은 민족과 세계를 돌돌한 력사적인 판문점수해상봉과 회담, 4.27선언의 달보다 140여일이 흘러갔다.

이 길지 않은 기간 또 한차례의 판문점 수해상봉과 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주최수해상봉과 회담 등 역사적 변곡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났다. 이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고 국제정치구도에서도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가기 위해 시종일관 꾸준하고도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늘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조치가 안아온 것이라는 걸 실다.

우리 공화국의 조국통일노선은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반영하고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며 애국적목표인 노선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을 선차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이요 광명정당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에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한 문제, 민족공동의 힘을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확고한 목표를 일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한편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양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대법한 조지와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국외에서 치달던 북남관계는 드디어 평화의 길, 화해협력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23차 겨울철을맞이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한결같은 노력과 끈기로서 통곡의 경사를 함께 기어올라 오고 도와주는것을 응당할 일로 여기는 우리 공화국의 뜨거운 분노에의 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스프리야, 프랑스, 수리아인사과 5일과 7일, 9일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스프리아공산당 국제비서 레안 요비노비치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강제를 잘당하고 나라를 해방하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시였으며 한평생을 강행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해 바치셨다.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명도말에 지난 기간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들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민주주의의 국가를 창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온갖 높은 자주적인민으로 되었다. 조선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국가이다.

오늘도 조선은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군력을 보유한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말에 조선의 국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수리아인민은 조선인민의 투쟁을 헌명하게 이끄는 김정일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은 굳건히 담보되고있다. 조선인민이 거둔 모든 성과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수리아 디마스공화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씨베르 박물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온갖 높은 자주적인민으로 되었다. 조선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국가이다.

오늘도 조선은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군력을 보유한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말에 조선의 국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수리아인민은 조선인민의 투쟁을 헌명하게 이끄는 김정일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지금 북남사이에는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여러 길래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있으며 그 과정에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져 온 겨레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지난 4일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소식이 진행되었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열심한 모든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과정에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활력있게 개척해나가기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이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열어나가기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통일위업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풀어

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함께 손잡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그 어떤 장애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없다.

북과 남은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우리 민족특체인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해결해나가는 것은 누구도 시반할수 없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이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애에 지닌 숭고한 사랑감으로부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주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스프리야, 프랑스, 수리아인사과 5일과 7일, 9일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스프리아공산당 국제비서 레안 요비노비치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강제를 잘당하고 나라를 해방하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시였으며 한평생을 강행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해 바치셨다.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명도말에 지난 기간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들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민주주의의 국가를 창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온갖 높은 자주적인민으로 되었다. 조선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국가이다.

오늘도 조선은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군력을 보유한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말에 조선의 국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수리아인민은 조선인민의 투쟁을 헌명하게 이끄는 김정일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은 굳건히 담보되고있다. 조선인민이 거둔 모든 성과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수리아 디마스공화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씨베르 박물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온갖 높은 자주적인민으로 되었다. 조선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국가이다.

오늘도 조선은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군력을 보유한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말에 조선의 국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수리아인민은 조선인민의 투쟁을 헌명하게 이끄는 김정일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 모든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계도, 화해협력의 계도에 들어서서 북남관계를 계속 발전없이 끝까지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박 철 준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 모든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계도, 화해협력의 계도에 들어서서 북남관계를 계속 발전없이 끝까지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박 철 준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 모든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계도, 화해협력의 계도에 들어서서 북남관계를 계속 발전없이 끝까지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박 철 준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 모든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계도, 화해협력의 계도에 들어서서 북남관계를 계속 발전없이 끝까지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박 철 준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 모든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계도, 화해협력의 계도에 들어서서 북남관계를 계속 발전없이 끝까지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박 철 준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 모든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계도, 화해협력의 계도에 들어서서 북남관계를 계속 발전없이 끝까지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박 철 준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 모든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계도, 화해협력의 계도에 들어서서 북남관계를 계속 발전없이 끝까지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박 철 준

다양한 형식의 반미투쟁 전개

보도들에 의하면 미국의 남조 선장정 7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반미투쟁을 전개하였다.

지난 6일 남조선의 《국민주 권연대》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미군을 즉시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조국 제1호-미국에게 고함》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보고에서 자신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더 이상 허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민중의 이름으로 미국이 모든 군사기지를 반환하고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8일 서울의 학생이 있는 미군기지앞에서는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차례로 제각각 《강제외국군정》을 붙이고 《미군철수》, 《북에서 치우고 나가라》 등의 글이 적힌 부른 《평화리퍼》를 제창하였다.

남도 부산에서는 《전쟁반

반봉쇄의 도전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걸음마다 시련과 난관이 겹쳐있지만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애와 힘에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올해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방향선이 천명된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

한편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양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대법한 조지와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국외에서 치달던 북남관계는 드디어 평화의 길, 화해협력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23차 겨울철을맞이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한결같은 노력과 끈기로서 통곡의 경사를 함께 기어올라 오고 도와주는것을 응당할 일로 여기는 우리 공화국의 뜨거운 분노에의 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과 남은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우리 민족특체인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해결해나가는 것은 누구도 시반할수 없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이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애에 지닌 숭고한 사랑감으로부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주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열심한 모든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과정에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활력있게 개척해나가기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이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열어나가기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통일위업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풀어

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함께 손잡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그 어떤 장애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없다.

북과 남은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우리 민족특체인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해결해나가는 것은 누구도 시반할수 없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이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애에 지닌 숭고한 사랑감으로부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주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열심한 모든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과정에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활력있게 개척해나가기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이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열어나가기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통일위업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풀어

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함께 손잡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그 어떤 장애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없다.

북과 남은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우리 민족특체인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해결해나가는 것은 누구도 시반할수 없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이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애에 지닌 숭고한 사랑감으로부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주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열심한 모든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과정에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활력있게 개척해나가기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이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열어나가기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통일위업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풀어

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함께 손잡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그 어떤 장애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없다.

북과 남은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우리 민족특체인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해결해나가는 것은 누구도 시반할수 없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이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애에 지닌 숭고한 사랑감으로부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주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열심한 모든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과정에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활력있게 개척해나가기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이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열어나가기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통일위업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풀어

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함께 손잡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그 어떤 장애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없다.

북과 남은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우리 민족특체인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해결해나가는 것은 누구도 시반할수 없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이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애에 지닌 숭고한 사랑감으로부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주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열심한 모든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과정에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활력있게 개척해나가기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이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열어나가기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통일위업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풀어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대정치축전

충 련 지 부 위 원 장 대 표 단 성 원 들 과 나 는 이 야 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조국인 강성부흥속에 해외동포들의 높은 존엄과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가 있다.》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의 피를 기를 잊고 그 어떤 명이나 대가를 바림이 없이 선진한 광신과 의리로 어머니조국을 떠날줄은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을 뜻없이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

정말 감격은 금할수 없다. 이번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를 주체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세계민방에 힘있게 떨친 력사적일대기였다. 자기 명도말에 대한 전제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 오른 생활한 화국으로 걸어나갔고있는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애국충정의 자취를 뚜벅이 아로세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한 충렬 지부위원장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기적이 후생진공들과 제일통보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애국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기자는 뜻깊은 시기에 조국을 방방하며 영광의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대정치축전에 참가한 소감이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충렬 오사까부 히기시오사까 남부지부 위원장 김영애: 그렇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 애국의 열기를 새겨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는 대정치축전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

방하게 되지는 실로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희상의 행운이었다.